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신창순 편
[한국]이재인 감수

민족출판사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신창순 편
[한국]이재인 감수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现代文学解读: 朝鲜文/申昌顺编. —北京: 民族出版社, 2007.6
ISBN 978-7-105-08321-3

Ⅰ.韩… Ⅱ.申… Ⅲ.现代文学-作品-韩国-朝鲜语
Ⅳ.I312.61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079813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7年6月第1版 2007年6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17 字数: 503千字 定价: 33.00元
ISBN 978-7-105-08321-3/I·1822(朝194)

编辑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민족출판사 출판 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7년 6월 제1판 2007년 6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880mm×1230mm 1/32 전지: 17
자수: 503천자 값: 33.00원
ISBN 978-7-105-08321-3 / I·1822(조194)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이 책에 대하여

중국에서 한국 문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부딪친 문제가 우선 중국인 학생들에게 적당한 한국 문학 교재가 부족한 것이었다. 아직 한국어 문장 이해 능력이 고급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대한 양의 한국 문학 작품을 읽히고 한국의 문학 흐름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해하기 쉽고 그러면서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을 포괄한 간추린 문학 교재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성급히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라는 교재 편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책은 대학교 고급 과정의 한국어학과 학습자들을 위하여 편찬하였다. 한국 문학의 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올바른 작품 감상의 원리를 알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목적이다.

본 작품의 선정은 한국의 현대 작가 중에서 지명도가 높은 작가는 물론이고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점을 많이 감안하여 그동안 한국에서 널리 읽힌 주옥같은 시 15편과, 소설 20편, 그리고 수필 10편을 수록하였다. 이러한 작품 감상을 통해 수난기로 시작된 한국 현대문학의 고뇌와 절망, 그리고 때로 그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찬란한 빛을 뿌리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알게 될 것이다.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첫머리에 한국 문학의 특성과 한국 문학의 흐름을 간략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매 작품마다의 작가 소개와 작품 이해는 학습자들에게 작가의 성향을 이해하고 선정된 작품의 위상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특히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출제된 학습 문제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유념해야 할 사항을 문제화하여 작품 분석과 감상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완벽한 한국 문학 교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의 촉박을 받으며 편찬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독자들의 질정을 거쳐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한국 문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과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편달이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의 편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도움을 주신 이재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을 출간해 준 민족출판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06년 10월 10일
편자 씀

차례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성 ····· 1
한국 문학의 흐름 ····· 5

제1부 시

시란 무엇인가 ····· 17

해(海)에게서 소년에게 / 최남선 ····· 20
진달래꽃 / 김소월 ····· 24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이상화 ····· 28
님의 침묵(沈默) / 한용운 ····· 32
유리창 / 정지용 ····· 35
와사등(瓦斯灯) / 김광균 ····· 38
난초(蘭草) / 이병기 ····· 41
사슴 / 노천명 ····· 45
성북동 비둘기 / 김광섭 ····· 47
국화(菊花) 옆에서 / 서정주 ····· 50
자화상 / 윤동주 ····· 53
껍데기는 가라 / 신동엽 ····· 56
나비의 여행—아가의 방 5— / 정한모 ····· 59
의자 / 조병화 ····· 62
산문(山門)에 기대어 / 송수권 ····· 65

제2부 소설

소설이란 무엇인가 ····· 71

혈(血)의 누(淚)(발췌) / 이인직 ····· 74
무정(無情)(발췌) / 이광수 ····· 89
배따라기 / 김동인 ····· 119
운수 좋은 날 / 현진건 ····· 138
벙어리 삼룡이 / 나도향 ····· 152
탈출기 / 최서해 ····· 168
낙동강 / 조명희 ····· 181
날개 / 이상 ····· 198
봄·봄 / 김유정 ····· 224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 239
백치 아다다 / 계용묵 ····· 251
사랑손님과 어머니 / 주요섭 ····· 268
오발탄 / 이범선 ····· 294
불신 시대 / 박경리 ····· 310
수난 이대(受難二代) / 하근찬 ····· 337
소나기 / 황순원 ····· 352
무진기행 / 김승옥 ····· 365
삼포 가는 길 / 황석영 ····· 400

병신과 머저리 / 이청준 ····· 425
뫼비우스의 띠 / 조세희 ····· 460

제3부 수필

수필이란 무엇인가 ····· 479

청춘 예찬(靑春禮讚) / 민태원 ····· 482
생활인의 철학 / 김진섭 ····· 486
나무 / 이양하 ····· 491
딸깍발이 / 이희승 ····· 495
메모광(狂) / 이하윤 ····· 501
방망이 깎던 노인 / 윤오영 ····· 506
무소유(無所有) / 법정 ····· 511
인연(因緣) / 피천득 ····· 517
설 / 전숙희 ····· 522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 박완서 ····· 527

참고 문헌 ····· 534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성

문학은 인류가 말로써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줄 알게 되면서 곧바로 생겨났으리라 추정된다. 천지자연의 위대한 힘을 찬미하는 노래라든가 종족의 신성한 내력을 회상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선사 시대에 성립한, 문학의 보편적인 원형이었다.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 생활과 경험의 세계가 더 확대되면서 문학은 다양한 변모를 겪으면서 형성되고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문학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전통이 있다. 고대 문학에서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학은 여러 장르 속에 역사에 서린 삶의 서정과 그 지향성을 형상화하여 한국 문학으로서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특성과 전통은 현대적인 의식과 새로운 기법으로 이루어진 현대 문학에 계승되어 독특한 매력을 이루고 있다.

1. 한국 문학의 개념

어떤 문학 작품이 한국 문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문학 작품의 생산과 향유의 주체가 한국인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문학의 표현 수단이 한국어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작품의 내용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요컨대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한국 문학의 범주가 좁아지게 된다. 특히 '한국어로 기록된 문학'만을 한국 문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한자로 표기된 한문 문학,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말로 전해지는 구비 문학을 모두 한국 문학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남는다.

문자로 기록된 것만을 문학이라고 한다면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문학이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말로 된 문학', 곧 구비 문학은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고, 문자가 보급된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으로 문학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나라의 문학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문학은 구비 문학에서 출발하여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이 공존하는 단계로 발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비 문학은 자체의 발달과 더불어 기록 문학에 소재, 양식, 상상력을 제공하는 창조적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다수 민중들에 의해 전승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민중들의 사상과 감정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비 문학을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국 문학이 국문으로 쓰인 문학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문 문학 역시 한국 문학의 울타리 안에 포함될 수 없다. 한문 문학의 창작과 수용이 지배층에 국한되기는 하였지만, 한국 문학의 일부를 이루는 엄연한 실체라는 점에서 한문 문학을 제외할 수 없는 일이다. 한자는 중국의 문자이기는 하지만 근대 이전까지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공동문어(共同文語)였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고유한 표기 수단을 갖기 이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구어(口語)와 문어(文語)가 다른 이중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문 문학을 한국 문학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또한 한문 문학은 주로 지배층의 생활과 의식을 담았지만 민중의 삶을 다루는 데도 인색하지 않았고 입으로 전승되던 구비 문학을 기록 문학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이처럼 한문 문학은 한국의 고유한 생활과 의식을 표현한 것이므로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한글의 창제는 한국 문학사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다. 한글의 창제로 구비 문학, 한문 문학, 국문 문학이 공존하는 시대가 열렸으며 근대에 들어와 한글이 공식적인 문자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국문 문학의 비중이 커졌다. 그리하여 근대 이후에는 국문 문학이 한국 문학의 중심을 이루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문학은 구비 문학, 한문 문학, 국문 문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한국 문학사는 이들 문학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전개되어 온 것이라고 하겠다.

2. 한국 문학의 특성

한 민족의 문학은 그 민족의 사상과 정서, 미의식 등을 형상화한다. 그런데 어느 민족의 문학이든 그 전통과 특성은 고정불변의 것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따라서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몇 마디, 또는 몇 가지로 요약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견해들을 알아보면 한국 문학의 특징은 '은근'과 '끈기', '애처로움'과 '가냘픔', '두어라'와 '노세' 등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은근'과 '끈기'는 한 민족의 생활이나 자연관이 은근하고 끈기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은근하고 끈기 있게 피는 무궁화를 국화로 삼은 것이라든가, 은근하게 우러나오는 맛을 중시하는 음식 문화, 화면을 다 채우지 않고 여백을 중시하는 한국화의 전통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 문학이 즐겨 다룬 자연은 그 하나하나의 아름다움보다 그들이 녹아서 조화된 아름다움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인의 생활과 문학 역시 조화와 균형의 은근함을 존중하는 특성을 가진다. 아울러 한국의 예술은 선의 예술로서, 이는 굳세고 웅대하지 못하지만 끈기가 있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으며, 가늘고 길고 연약한 가운데 나타나는 애처로움과 가냘픔이 한국 문학의 특성이라고 보았다. 한편 온화한 자연 환경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여유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생

활 태도가 '두어라'와 '노세'의 의미 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문학의 미적 특질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멋'이다. '멋'은 여러 가지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한데 엉키어 새로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또는 정상적인 상태를 약간 벗어났으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일컫는다.

'멋'과 함께 한국 문학의 특질로 늘 거론되는 것은 '한(恨)'이다. '한'은 풀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에서 비롯된다. '한'이란 주어진 운명에 대결하지 않고 순응함으로써 슬픔을 승화시키려는 정서이다. 즉 현실적으로 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으나 내면적으로는 주어진 운명을 부정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한'의 정서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잦은 외침(外侵)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민족의 역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의 정서는 한국 문학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고려 가요 〈가시리〉를 비롯하여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초혼〉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학이 '한'과 같은 애상적 정서로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그 근거는 '해학'과 '풍자'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흥부가〉에서 가난 타령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흥부의 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은 뜻밖에도 웃음을 자아낸다. 처절하기까지 한 흥부의 가난을 눈물로 호소하기보다는 웃음으로 처리한 것으로부터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민중들의 건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웃음이 곧 해학이며 이러한 전통은 김유정의 〈동백꽃〉이나 〈봄·봄〉으로 이어지고 한편 현실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풍자의 전통도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연 친화 의식 또한 한국 문학의 특질로 꼽힐 수 있다.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삼는 서구인들과 달리, 한국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자연을 동화(同化)나 귀의(歸依)의 대상으로 여겨 왔다.

이 밖에도 한 민족의 기층에 잠재되어 있는 무속적 세계관, 중국에서 전래되어 많은 영향을 끼친 유교·불교·도교적 세계관 등도 한국 문학의 사상적 특성으로 거론된다.

한국 문학의 흐름

한국 문학의 흐름을 크게 나누어서 19세기 말까지의 문학을 고전 문학이라 하고 20세기 초 이후의 문학을 현대 문학이라 한다. 20세기 초를 전후해서 한국 역사는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에서 커다란 변화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를 경계로 앞뒤의 시대를 구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을 시대의 단절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역사 흐름의 중간에 어떤 격류가 있다고 해서 도도한 대하의 줄기 자체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 고전 문학

한민족의 역사는 한민족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정착하면서 비롯되고, 그 후 부족 국가를 거쳐 고대 국가를 이루게 된다. 한국 문학의 발생과 형성기에 해당되는 고대 문학은 이 시기를 배경으로 시작된다.

1) 고대의 문학

고대 초기의 문학은 다른 예술과 혼합된 형태의 원시 종합 예술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성격에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성격으로 변모해 갔다. 이 시기의 초기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학 활동은 구비 문학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옛 문헌에 기록된 제천 의식이나 신화에서 그 단편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제천 의식에서 문학, 음악, 무용이 혼합된 원시 종합 예술이 행해졌다.

이 시기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신화이다. 이것은 서사 갈래에 속하는 문학으로, 건국 영웅들의 위대한 행적을 다루고 있다. 〈단군 신화〉를 비롯하여, 〈주몽 신화〉, 〈혁거세 신화〉, 〈수로왕 신화〉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원시 종합 예술이 점차 분화하면서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하가〉와 같은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고대의 시가로 발전하였다.

2) 삼국 시대의 문학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체제를 정비하면서 한문을 활용하고, 유학과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한국 문학사에서 커다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자의 전래와 함께 중국을 통하여 불교와 도교가 들어왔다. 외래 종교들은 보편적인 이념을 지닌 것으로,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더하였다. 아울러 한자의 전래를 계기로 구비 문학의 시대에서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이 공존하는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신라의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한국말을 표현하는 향찰식(鄕札式) 표기를 창안하기도 하였다. 향가에는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숭고한 정신세계를 표현한 뛰어난 작품들이 많으며, 향가는 최초의 국문 시가이자, 본격적인 기록 문학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구려와 백제도 독특한 문화와 문학을 이루었는데, 신라의 삼국 통일로 인해 문학 유산은 거의 소멸되었다. 고구려 문학으로는 〈온달 설화〉, 〈호동왕자 설화〉를 비롯하여 유리왕의 〈황조가〉, 을지문덕의 〈여수장우중문시〉 등이 전해지고 있다. 백제의 문학으로는 〈선운산〉, 〈무등산〉, 〈지리산〉 등의 노래가 있었으나, 〈정읍사〉만이 전해지고 있다.

3) 고려 시대의 문학

고려의 문학은 한문 문학의 융성과 국문 문학의 위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문학적 소양을 인재 등용의 기준으로 삼은 과거 제도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시기 한문학의 대표적 인물로는 김부식, 정지상, 이인로, 이규보, 임춘 같은 인물이었다.

앞 시기의 문학적 유산인 향가는 고려 초기까지도 창작되었으나, 한문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점차 쇠퇴하였고, 새로운 서정시의 출현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창작된 향가로는 균여의 〈보현십원가〉 11수가 있으며 그 잔영으로 예종의 〈동이장가〉, 정서의 〈정과정곡〉 등이 전해지고 있다.

고려 속요는 평민들의·노래로,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속악(俗樂)의 가사를 지칭한다. 원래는 평민들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삶의 고뇌를 드러낸 것으로, 그 일부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었다. 대체로 3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으며, 여음을 사이에 두고 여러 개의 연이 중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시리〉, 〈청산별곡〉, 〈동동〉, 〈사모곡〉, 〈이상곡〉, 〈쌍화점〉, 〈정석가〉 등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표기 수단이 없이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문자로 정착되었다. 한편 속요는 '소악부(小樂府)'라는 이름으로 한역되기도 하였다.

고려 중엽에는 문인층 사이에서 경기체가라는 새로운 형식이 등장하였다. 경기체가는 한자 어구로 지칭된 사물을 열거하면서 감흥을 찾는 것으로서 교술시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다. 경기체가는 고려 고종 때, 여러 선비들이 함께 지은 〈한림별곡〉에서 시작되어,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

민간에 전승되던 설화를 채록하면서 기록자의 창의성과 윤색이 보태진 산문 양식을 패관 문학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는 이인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이제현의 《역옹패설》, 이규보의 《백운소설》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설화만이 아니라, 시에 대한 비평과 수필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고려 후기 문인들의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다.

假傳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의 형식으로 쓰는 한문 서사 문학으

로, 임춘의 〈국수전〉·〈공방전〉, 이규보의 〈국선생전〉, 이곡의 〈죽부인전〉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4) 조선 전기의 문학

조선 초기에는 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거나 왕조의 융성을 기원하는 악장이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신도가〉,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등이 있으나, 본격적인 문학으로는 정착되지 못하고 곧 소멸하였다.

이 시기에는 고려 후기에 발생한 시조와 가사가 사대부를 중심으로 크게 융성하였다. 특히 시조는 3장 6구, 12음보, 45자 내외라는 간결한 형식과 절제된 언어 표현으로, 간결하고 소박한 것을 즐기는 사대부의 성정(性情)과 미의식에 부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들은 시조를 통해 유교 이념과 자연을 즐기는 강호가도(江湖歌道)를 표현하였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시조 작가로는 이현보, 이황, 이이, 정철, 황진이 등이 있다.

가사는 4음보 연속체의 행을 비교적 길게 서술한 시가이다. 초기에는 주로 자연에서의 삶을 노래한 가사가 많이 이어졌는데, 정극인의 〈상춘곡〉, 송순의 〈면앙정가〉 등이 대표작이다. 이후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다.

전대의 설화나 패관 문학, 가전체의 전통은 마침내 조선 시대에 이르러 소설을 탄생시켰다. 김시습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를 기점으로 한국 문학은 본격적인 소설 시대의 문을 열었으며, 꿈에서 겪은 일을 기록한 '몽유록(夢遊錄)'이라는 소설 양식도 출현하였다.

한편 성리학이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문 문학이 융성하였다. 서거정의 《동문선》은 당시까지의 한문 문학의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당대의 한문학은 기본적으로 문학의 목적성을 강조하였으나 이 중에서도 서정성을 중시하는 사장파(詞章派)와 사상을 중시하는 도학파(道學派)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김시습은 세상을 등진 채 독자적인 문학 세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